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6년 7월 24일(주일) 제1109호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추모예배 8월 2일 저녁 7시30분 서빙고 본당 1~6일 추모기간, 새벽예배 하 목사 영상설교

하용조 목사 소천 5주기(8월 2일)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온누리교회는 8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를 ‘하용조 목사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고인의 삶과 신앙을 기억하기로 했다.

하용조 목사 소천 5주기 추모예배는 8월 2일에 드린다. 오전에는 Acts29 비전빌리지 하용조 목사 기념관에서 하 목사 가족, 당회운영위원회 장로, 98년 이전 장로 등 140명이 참석하

는 가운데 추모예배를 드린다. 저녁 7시30분에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도 추모예배를 드린다.

하용조 목사 추모예배는 박용국 장로의 대표기도, 오오가와 목사(아마도 갈보리채플 담임)의 설교, 유가족 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Acts29 비전빌리지로 오고 가는 셔틀도 운행된다. 오후 6시30분 이촌역 4번 출구에서 탑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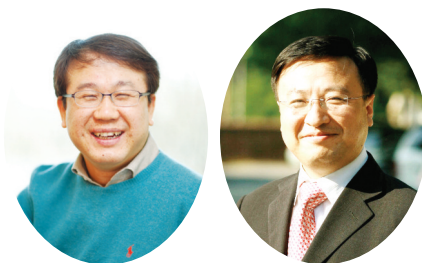
하면 된다. 하용조 목사 추모기간 동안 새벽예배는 하 목사가 생전에 ‘광야의 축복’을 주제로 설교한 영상이 상영된다.

한편 두란노서원에서 하 목사의 저서 <사랑하는 가족에게>를 출간했다. 하 목사가 생전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려주는 결혼과 가정의 지혜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최원준 목사 안양 제일교회 담임목사 부임

오늘 강동 담당목사 이·취임예배, 후임 노치형 목사



최원준 목사

노치형 목사

최원준 목사(강동 온누리교회)가 8월 1일부터 안양 제일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다(관련 기사 7면). 최원준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하는 안양 제일교회는 86년의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교회다. 성도 7,000명이 출석하는 교회다.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로 정평이 나왔다.

최원준 목사는 “온누리교회에서 15년 동안 섬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성숙한 성도님들과 동역자들의 도움이 컸다”면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동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이·취임예배는 오늘(24일) 오후 2시 강동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린다. 강동 온누리교회 후임으로는 노치형 목사가 부임한다.

/ 김영선 기자

양지 ‘Life Road Singers’ 초청 찬양콘서트

오늘(24일) 오후 2시 김사무엘홀



양지 온누리교회가 창립 4주년 찬양콘서트를 연다.

양지 온누리교회가 오늘 오후 2시 김사무엘홀에서 찬양사역팀 ‘Life Road Singers’ 초청

찬양콘서트를 개최한다. ‘Life Road Singers’는 20여 명의 클래식 음악 전문인들로 구성된 찬양사역팀으로 현재 서울과 홍콩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다. 대표곡은 ‘은혜 아니면’이 있다.

한편, 양지 온누리교회는 지난 7월 8일부터 금요성령집회를 열고있다. 집회 인도는 이상준 목사(7월 29일), 이기훈 목사(8월 5일), 김성진 장로(8월 12일), 도육한 목사(8월 19일)가 한다. 숙소(비용 개인부담)도 마련되어 있다.

문의: 031-331-8100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유산은 없다 믿음을 지키라 나라를 사랑하라”

올 여름 꼭 만나야 할
신앙의 선배들

‘아름다운 빈 손’ 한경직 목사의 삶과 신앙을 만나다

1. 한경직 목사
2. 주기철 목사
3. 손양원 목사

교회가 돈 문제에 휘말리는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교회를 짓겠다며 성도들에게 담보대출을 받게 하고 그 빚을 갚지 않고, 3억 원이 넘는 교회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헌금명목으로 48억 원을 세탁한 사례 등 교회에서 돈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지 않고, 무소유의 삶을 살았던 ‘아름다운 빈손’ 한경직 목사의 청빈한 삶이 그리워진다. 본지에서는 올 여름 우리가 꼭 만나야 할 신앙의 선배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들의 아름다운 삶과 신앙을 보고, 만지고, 배우고, 느끼면서 예수 닮은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해사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한경직 목사다. 한 목사는 선명회(현 월드비전) 초대 이사장, 숭실대학 재건,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회 총재,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명예회장, 템플턴상 수상, 대한민국 건국공로장 수상 등 귀감이 되는 수많은 일들을 했다. 한국 기독교의 거목, ‘동양의 성자’라고 불린다. 그의 청빈한 삶을 만나기 위해 남한산성 한경직 목사 우거처,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 기념관을 다녀왔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한경직 목사가 남긴 재산이라고는 휠체어와 지팡이, 털모자가 전부였다. 평생을 자신보다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섬겼다. 그는 1973년 70세에 영락교회 담임목사직을 은퇴하고 남한산성 자락에서 여생을 보냈다. 남한산성 한경직 목사 우거처에 가면 그의 청빈한 삶을 고스란히 만날 수 있다.

남한산성 우거처(寓居處)

남한산성을 10여 분 정도 오르면 초록색 담장과 함께 ‘한경직 목사 우거처’ 안내판이 보인다. 그 초록색 담장 안에 있는 한경직 목사 우거처는 작고 아담한 단층 건물이다. 대형교회 담임목사가 머물렀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작고 초라하다. 우거처(寓居處)는 말 그대로 ‘남의 집에서 임시로 몸을 붙여 산다’는 뜻이다.

한경직 목사 우거처는 원래 영락여자신학대학 기숙사였다. 은퇴한 한 목사는 “은퇴목사가 교회 근처에 머무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사택을 떠나고 싶어 했다. 그러자 교회 리더십들이 서울 근교에 아파트를 마련해 주려고 했다. 그 제안을 받은 한 목사는 “성도들의 소중 한 헌금을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나는 영



남한산성 우거처의 침실.

락여자신학대학 기숙사면 된다”고 일축하고 1974년 가로등도 없던 남한산성 자락에서 살기 시작했다. 단순히 공기 좋고, 산이 좋아 남한산성 자락에서 생활한 것이 아니다. 성도들의 헌금을 자신의 여생보다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한 목사가 우거처에 남긴 것이라고는 휠체어와 지팡이, 서적 몇 권, 옷 몇 벌이 전부다.

우거처의 달력은 그가 소천한 2000년 4월 19일에 멈춰있었다. 우거처의 문을 열고 들어 서면 거실 겸 주방이 보인다. 주방 왼편에는 응접실이 있다. 한 목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그 작은 응접실에서 맞이했다. 그 응접실에는 한 목사가 소장했던 성경책 한 권이 펼쳐져 있다. 하용조 목사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곳에 들러 한경직 목사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한다.

응접실 안쪽에는 작은 침실이 있다. 침실 안쪽에 낡은 장롱이 있는데 장롱 문쪽에 빛 바랜 누런 종이가 붙어있다. 태극기가 그려져 있고,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가사가 쓰여 있다. 한 목사는 침대에 눕거나 일어날 때마다, 옷장을 열고 닫을 때마다 수시로 태극기를 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고 한다. 나라사랑도 으뜸이었다. 낡고 빛 바랜 가구들이 어떤 이들의 눈에는 낡고 쓸모 없는 가재도구일지 모르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믿음의 유산이다.

옷장과 옷에 얹힌 이야기

단출하기 짝이 없는 옷장과 옷에 얹힌 이야기가 많다. 한 목사가 삶으로 나눔을 실천한 이야기들이다. 외투 몇 벌 넣으면 가득 차는 옷장을 채우기가 그렇게 힘들었다고 한다. 누군가 옷장에 옷을 넣어두면 한 목사는 “난 입을 것이 많아요”라며 그 옷을 필요한 이들에

게 나누어줬다. 양복이고, 외투고 할 것 없이 선물했다. 한 번은 성도가 따뜻한 겨울 외투를 선물했는데 교회 인근에서 동냥 하던 장님이 그 외투를 입고 있었다고 한다. 한 목사는 진정으로 자신보다 남의 사정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변변한 양복 한 벌 없는 목회자들에게 자신의 양복을 선물하고, 본인은 두루마기를 걸치고 설교를 했다고 한다.

한 목사가 템플턴상을 수상하기 위해 독일로 떠나는 날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고 한다. 독일로 떠나는 날 옷을 입으려 침실에 들어간 한 목사가 한참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았던 것. 응접실에서 기다리던 일행들이 기다리다 못해 침실에 가봤더니 한 목사가 와이셔츠만 입고 옷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남들에게 옷을 다 나눠줘서 정작 본인이 입을 외투가 없었던 것이다. 급하게 외투를 장만하고 나서야 공항으로 갈 수 있었다고 한다.

템플턴상은 미국의 사업가 템플턴이 창설했다. 종교 활동의 증진·향상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상으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린다. 매년 종교분야에서 인류를 위해 크게 이바지한 인물들에게 준다. 첫 번째 템플턴상 수상자는 ‘테레사 수녀’다. 한경직 목사는 사회복지 확충, 기독교 성장과 ‘사랑의 쌀나눔 운동’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템플턴상을 수상했다. 그때 받은 상금 100만 달러를 모두 북한 선교를 위해 헌금했다.

우거처에는 두 개의 기도처가 있다. 우거처 왼쪽 좁은 숲길을 70m쯤 오르면 평평한 땅이 나오는데 바위 3개가 가지런히 놓여있다. 이곳이 ‘제1기도처’이다. 한 목사의 건강이 악화돼 매일 ‘제1기도처’까지 가는 것이 힘들어 지자 우거처 오른편 조그만 동산에서 기도를 했는데 이곳이 ‘제2기도처’이다. 한 목사는 두 기도처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

해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 기념관’

2000년 초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진 한 목사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 기념관’ 1층에 있는 사택 겸 게스트하우스에서 생활했다. 같은 해 4월 19일 98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 기념관’에는 그가 임종하기 전 4개월 동안 생활했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침대, 옷장, 식기구, 옷가지, 임종 당시 누워있던 병상까지 볼 수 있었다. 기념관 안에도 응접실이 있는데 이 응접실 자리가 한 목사가 영락교회 담임목회를 하던 당시 머물렀던 사택 자리라고 한다. 남한산성 우거처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기념관 2층에는 한경직 목사의 집무실과 그의 일대기를 전시한 기념전시관이 있다. 한 목사의 출생부터 소천까지 일생과 삶, 그리고 신앙을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기념관 3층과 4층에는 도서관이 있는데 한경직 목사의 주옥 같은 설교와 관련 서적들이 전시되어 있다.

“물려줄 물질유산은 없다. 믿음을 지키라. 나라를 사랑하라.”

이것이 한경직 목사의 유언이다. 그가 남긴 유산은 휠체어, 지팡이, 털모자, 옷가지가 전부였지만 그가 남긴 믿음, 나라와 민족사랑,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섬기는 마음은 지금도 빛을 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나는 청지기일 뿐’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자신보다 더 품고 사랑했다. 한경직 목사의 사회복지 정신에 따라 영락교회는 24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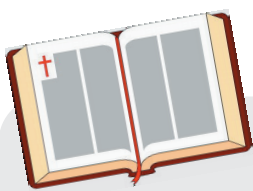
찾아가는 길

남한산성 ‘한경직 목사 우거처’는 산성역(8호선) 2번 출구로 나와 9번이나 52번 버스를 타고 종점인 남한산성에 도착한 후에 복문(전승문)방향 이정표를 따라 10~20분가량 산을 오르면 도착한다. 평소에는 방문할 수 없지만, 영락수련원에 문의하면 방문할 수 있다.

문의: 영락수련원 031-743-6537,
우거처 관리처 031-747-0493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 기념관’은 영락교회 정문에서 바라보면 우측 두 번째 건물이다. 1, 2층은 한경직 목사 기념관, 3, 4층은 한경직 목사 도서관이다.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개관한다(월 휴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토요일에는 오후12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한경직 목사 도서관은 월요일과 공휴일에 휴관한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주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된다.

문의: 한경직 목사 기념사업회 02-2280-0292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요나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

욥 2:1~10

“옛사람이 수장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선지자 요나의 참회록입니다. 요나의 죄와 허물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악한 백성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도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도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받는 축복은 환영하지만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축복 받는 것은 거절합니다. 내가 받은 특권은 좋아하지만 사명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나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이 받은 특권과 축복은 환영하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특권과 사명은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특권과 축복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요나가 사역하던 시대는 북왕국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경제적으로 아주 번영했습니다. 영토가 확장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안목은 좁아져있던 시대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었던 시대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요나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더 넓게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먼저 선택 받아 구원받은 이 시대 백성들의 문제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증인으로 선택받았지만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가 받은 축복과 특권만을 누리기 원하는 좁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성도들의 문제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으로 요나를 추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폭풍을 일으키시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행하는 모든 불순종을 이렇게 대하신다면 살아남는 사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폭풍이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였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경우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부여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추적하셨습니다. 요나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큰 파도가 그를 삼켜 버렸습니다. 그는 깊은 바다 속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물이 내 영혼을 에워싸고 심연이 나를 삼키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산의 뿌리에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5~6절).

요나는 마지막 몇 초 남지 않은 호흡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더 이상 숨 쉴 수 없는 순간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도움을 요청할 대상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요나에게는 부르짖을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죽음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에게 믿음의 불씨가 남아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해놓고 계셨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 죽음 직전에 처했을 때 그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였습니다. 요나는 그곳을 지옥의 깊은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나는 죽으려고 자신의 몸을 던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살려고 해도 죽을 수 있고, 죽으려고 해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3일 밤낮’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숙어적 표현입니다. 그들은 하루 조금 지난 시간도 이렇게 표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꼭 72시간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요나가 일정한 기간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회의론자들과 불신자들이 성경을 믿지 않은 이유를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기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큰 물고기 속에 산채로 삼켜질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동화나 신화 속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브리태니커 출판사에서 인용해서 답한 논문이 있습니다. 1927년 프린스턴 신학지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스펀고래의 구조와 습관을 조사해본 결과 사람이 산채로 삼켜졌다가 그 안에서 생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래는 머리가 상당히 크고, 입의 길이가 20피트, 높이가 15피트, 넓이가 9피트입니다. 사람보다 더 큰 오

징어도 산채로 삼킬 정도로 큰 고래입니다. 문제는 그 고래의 위속에서 사람이 정말 생존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1891년 2월 사우스 애틀랜타 해를 항해하던 영국배가 포클랜드 아일랜드 근해에서 고래의 공격을 받고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21살 된 제임스 바틀리라는 선원이 바다에 빠졌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선원들이 그 근처에 있던 고래를 잡아서 고래의 위를 열었는데 그 선원이 그 안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고래 배속에서 18시간이나 있었습니다. 피부가 완전히 표백된 상태였다고 하지만 살았고 1909년까지 살았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현대판 요나, 제임스 바틀리’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백과사전에 1870년에서 1909년까지 살았던 현대판 요나 이야기가 실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를 삼켰던 고래가 스펀고래 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도 고래에게 산채로 삼켜졌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요나가 겪은 상황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여덟 차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요나가 죽어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분에게 요나가 큰 물고기에게 삼켜졌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일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었느냐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변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서 나타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첫째, 그는 회개했습니다. 지옥 같은 상황에 던져졌지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깊은 바다에 던진 것은 선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에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파도와 소용돌이가 나를 덮었습니다”(3절).

자신에게 임한 죽음의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선한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요나는 돌이키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우상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8절).

요나 스스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렇더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

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4절).

‘다시’라는 단어 속에 회개의 은혜가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시체와 같은 상태입니다. 몇 초를 더 살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가 몇 초 남아있든 간에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다시’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요나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도 받아주시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 다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유사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갔던 아들이 지옥 같은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탕자는 돼지우리에서 정신을 차렸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둘째, 요나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감사는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주장할 의로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항변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라고 항변할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덩이에 갇히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항변할 수 있는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 앞에 주장할 그 어떤 의로움도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심판 받고 지옥 같은 상황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 것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도 감사하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9절).

요나는 자신의 소원을 주께 갚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이 다시 한번 헌신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보장이 없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 감사, 재헌신의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요나의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요나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육지에 내어 보내셨습니다. <13편에 계속>

하늘공동체 남아시아 M국



공영진 형제
(하늘공동체)

지난 1월 남아시아 M국 아웃리치를 다녀온 후 마음에 새겨진 찬양이 ‘주님은 산 같아서’다. 남아시아 M국을 통해 하나님은 내게 산 같으신 분임을 깨닫게 되었다.

올 여름 하나님께서 나를 남아시아 M국으로 다시 부르셨다. 아웃리치 일정이 나왔을 때 남아시아 M국 아웃리치만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20대 첫 여름 방학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았는데 선불리 결정하는 것이 아닌지, 지금 이 시기에 남아시아 M국 땅을 다시 밟는 것이 옳은 것인지 등을 생각하면서 망설이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고 싶어 하는데 왜 고민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그곳이 어떤 의미가 있는 땅인지를 알고 계셨다. 내가 그곳에 다시 가고 싶어 한다는 것 또한 알고 계셨다. 그렇게 나의 아웃리치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시작되었다. 팀원들을 만나고 사역들을 준비하는 과정은 여느 아웃리치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서 무엇을 느낄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가야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

했다. ‘그냥 아웃리치니까, 원래 이런 거니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안일한 나를 하나님께서 일깨워주셨다. 1학기 성적이 나오고 결과에 대한 자괴감이 들었다. 학업으로부터 도피해 온 나의 모습들이 생각났다. 그동안 사역들로 쌓여왔던 피로가 나를 덮쳐왔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성경을 읽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정리해 주셨지만 조금은 뒤숭숭한 마음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우리의 주된 사역은 ‘청년 새신자 수련회’였다. 우리는 수련회 기간 동안 그 친구들과 함께 놀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뛰며 찬양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나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그들 삶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많은 교제를 나누고 마지막 날에 결단카드를 작성하는 시간이 있었다. 나는 그 청년들이 고민하지 않고 결단카드를 작성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망설이고 있었다.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렸는데도 그들 가운데에는 아직도 두려움과 주저함이 있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을 이끄실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나는 내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 몫은 하나님께 달려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늘공동체 지체들이 현지인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다. 그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지만, 나의 삶은 내가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나를 남아시아 M국으로 다시 이끄신 것과 이런 생각들을 하계 하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기쁨이다.

아웃리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내가 무너지고, 쓰러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지에 대해서 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들 모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이다. 삶에서의 작은 변화와 결단이 하나님께서 쓰신 내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이야기를 주님께 맡기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소명인 것이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으로 인해 승리할 때 우리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올 것 같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강남B공동체 강원도 정선 풍운감리교회



유미라 집사
(강남B공동체)

지난 9일, 강남B공동체 소망다락방과 공흥다락방(6순)이 연합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우리가 찾아가는 곳은 강원도 정선 풍운감리교회다. 아웃리치를 가기 전 네 차례 기도회를 가졌는데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과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공동체 아웃리치에 처음 참여하는 것도 부담이었다. 그 부담감을 내려놓고 주일예배를 드렸다. 그날 설교 중에 “헌신은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섬기는 것”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 “이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선포했다. 그렇게 선포한 이후 부담감이 기대감으로 바뀌었다.

아웃리치 일주일 전, 다락방 담당장로님 덕에서 사전모임을 가졌다. 장로님이 먼저 회사와 가정에 있는 물건들을 내놓으면서 아웃리치 필요 물품들을 하나씩 채워주었다. 아웃리치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필요 물품들이 채워지는 모습이 정말 귀했다.

드디어 아웃리치 가는 날. 오전 6시 30분 도곡교육관에 집결해서 강원도 정선으로 출발했다. 장맛비로 계곡에 물이 가득 찼고, 피약별이

내리쬐는 무더운 날씨였다. 서울에서 출발한 지 약 3시간 후에 아주 작은 교회에 도착했다. 국도변에 인접해 있는 교회였다.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오가는 것이 매우 위험해보였다.

도착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퍼즐을 맞추실까?”를 기대하게 됐고, “마을 어르신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방문이었기에 그곳의 필요를 잘 알고 행길 수 있었다. 우리는 교회 접합도색과 교회 명판을 설치했다. 교회 입구의 수목도 제거했다. 무더운 날씨에 사역하느라 모두가 땀으로 흠뻑 젖었다. 정선 풍운감리교회에는 4~5명의 성도가 있다. 30대 젊은 목사님이 그들을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데 지친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 생후 1년 된 아들의 잦은 잔병치레로 어려움을 겪고 계셨다.

식사 준비를 위해 마을회관을 둘러봤다. 마을 어르신 세 명이 둘러 앉아 담소를 나누고 계셨다. 어르신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다는 말을 듣고 많이 기다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따뜻하게 만져 주셨다. 주일 점심에는 김치를 담그며 주민들께 대접할 삼계탕을 준비했다. 주민들도 일손을 돕겠다고 자청하면서 행복한 교제를 할 수 있었다.

주일예배를 드리고 마을회관으로 어르신들을 초청했다. 가마솥에서 끓여낸 삼계탕과 곁절이를 듬뿍 나눠 드셨다. 50명 정도 되는 어르

값진 시간들이 모여 천국그림을 완성



마을회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안마를 해드리고 있다.

신들께 풍성한 잔치를 베풀었다. 목사님은 조복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무엇을 해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준비해 온 삼계탕이 제격이라고 하셨다. 이제 한결 편안하게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하셨다. 농번기라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왔으면서 노인회장님이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하셨다. 더 많은 인원이 오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맛있게 드셔주시고, 칭찬해주시는 어르신들 덕분에 정말 행복했다.

식사를 마치고는 의료사역과 이미용 사역을 실시했다. 남자 집사님들은 설거지를 맡았다. 각자 맡은 사역을 섬기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졌다. 정선에서 보낸 값진 시간들이 모여 천국그림을 완성하였다. 내년에도 또 와달라고 손잡아 주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졌다. 정선 풍운감리교회 아웃리치는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값진 선물이었다.

양천공동체 동아시아 B국



황태욱 성도
(양천공동체)

올해 우리 양천 공동체의 해외 아웃리치는 동아시아 B국에서 3박4일 동안 진행되는 일정이었다. 개인적으로 이번이 세 번째 해외 아웃리치였다. 첫 번째는 2010년 아프리카의 초등학교와 교도소 재소자들을 섬기는 사역이다. 아직까지도 그때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다. 그만큼 소중한 사역이었다. 두 번째는 지난해 여름이었다. 남아시아 J국에서 고아원을 섬기는 사역이었다. 그때의 감동은 아직까지도 공동체에서 회자되고 있다.

나는 올해 공동체 선교사역자로 순종하게 되었다. 선교사역자로 섬기면서 처음 맞이하는 해외 아웃리치였기에 의미가 남달랐다. 양천공동체는 8개 다락방이 9개 지역 선교사님들과 결연을 맺고 있다.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정성스럽게 섬기고 있다. 나는 동아시아 B국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을 꼭 뵙고 싶었다. 7월 1일, ‘하나님께서 이번 아웃리치에서는 무엇을 보여 주실까?’라는 기대감을 안고 동아시아 B국에 도착했다. 선교사님 내외분께서 공항까지 마중 나와 우리를 맞아 주셨다. 우리 일행은 8명이었다. 적은 규모의 아웃리치

팀이었다. 우리가 방문한 동아시아 B국은 선교 활동에 많은 제한이 있는 곳이다. 통제가 심해 당국의 눈에 띄지 않는 적은 규모로 아웃리치 팀을 구성한 것이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아웃리치 출발 전에도 적지 않은 심적 부담이 있었다. 거기다 32권의 한글판 성경책을 현지에 전달해야 했다. 우리 일행은 무사히 그 일을 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모일 때마다 기도했다. 그만큼 부담이 컸다. 우리가 동아시아 B국에 무사히 입국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32권의 한글판 성경책도 안전하게 현지 사역자에게 전달했다. 우리가 전달해 준 32권의 성경책이 동아시아 B국에 복음이 전해지는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선교사님 내외는 동아시아 B국에서 14년 동안 헌신하고 계셨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동아시아 B국 서부지역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모습이 큰 감동을 주었다.

이번 동아시아 B국에서의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은 셀교회에서 진행된 세미나였다. 선교사님 내외분께서 ‘동아시아 B국의 기독교적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우리가 궁금해 하던 동아시아 B국 복음화의 현주소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동아시아 B국은 극적인 복음화와 기독교의 부흥과 더불어 도시화와 현대화가 되었는데, 지금은 복음화가 정체되

더욱 감사함으로



양천공동체 성도들이 장애인 고아원 아이들과 교제하고 있다.

고 있다고 했다. 동아시아 B국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

아웃리치 마지막 일정은 선교사님 내외분께서 섬기는 셀교회에서 현지어로 찬양을 하고, 현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현지 교회가 정기적으로 섬기고 있는 장애인 고아원을 방문해서 장애인들을 섬기는 사역도 했다.

하나님께서 이번 동아시아 B국에서의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 선교사역자로서 현지 상황을 바르게 볼 수 있게 이해의 폭을 넓혀 주셨다. 마음껏 부르짖으며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유함도 선물해 주셨다. 하나님께 더욱 감사함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아웃리치 모든 일정을 은혜롭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린다.

푸른누리공동체 서대문구 두리홈(미혼모공동체)



이형민 성도
(푸른누리공동체)

푸른누리공동체는 격월로 미혼모들을 섬기고 있다. 서대문역 근처에 있는 구세군 두리홈이 바로 그곳이다. 그곳에는 미혼모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미혼모들은 과거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간직한 채 끊임없는 걱정과 불안 속에서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다. 푸른누리공동체는 미혼모들이 외출을 나가있는 5시간 동안 아기를 돌봐주는 사역을 하고 있다.

푸른누리공동체는 미혼모들에게 더 소중한 것을 선물하고 싶었다. 그래서 7월 2일부터 3일까지 경기도 포천에 있는 베어스타운에서 ‘미혼모들을 위한 아웃리치’를 실시하게 되었다. 미혼모들에게 힘과 위로, 기쁨과 자유를 선물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푸른누리공동체 지체들은 이를 동안 어린 자녀들을 일대일로 돌봤다. 섬세한 돌봄이 필요한 12개월 이하 아기들은 푸른누리공동체의 젊은 엄마들이 도맡았다. 12개월 이상 된 아이들은 유치원 선생님들이 돌봤다. 탁아방에서 재미있는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시간, 아이들로부터 자유로워진 미혼모들은 말 그대로 자유를 만끽했다. 아침고요수목원에 가서 힐링하는 시간을 보냈고,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며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저녁에는 레크리에이션과 장기자랑이 열렸다. 저녁 프로그램을 위해 밴드가 결성됐는데 감춰둔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푸른누리 밴드의 공연을 시작으로 ‘힐링 나이트’ 프로그램에서는 두리홈 엄마들과 푸른누리공동체 지체들이 노래자랑을 했다. 총 6팀이 경연을 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기쁨과 환희가 넘쳐흘렀다. 참여했던 사람들 모두가 무척 즐거워했다. 주일에는 두리홈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혼모들이 가족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줬다. 그리고 주일예배를 함께 드렸다. 함께 뜨겁게 주님을 찬양했다. 많은 미혼모들이 눈물 흘리며 예배를 드렸다. 그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도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살아계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약한 자, 굶주린 자,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순간이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두리홈에서 생활하고 있는 엄마들과 말씀을 나눴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시는 것이 느껴졌다.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던 한 미혼모가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간증도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다시 한 번 살아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게



푸른누리공동체가 아이들과 물놀이를 하고 있다.

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또한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대해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이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연약한 사람처럼 된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

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고전 9:19,22).

자기를 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한다. 나의 모습을 버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인간적이고, 화려하고, 멋진 방법을 버리고 앞으로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방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싶다.

CH630공동체 중앙아시아 C국

백승덕 형제
(CH630공동체)

이번이 나의 첫 번째 해외 아웃리치였다. 지금까지 해외 아웃리치를 가지 못했던 이유는 다양했다.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언어를 꼽을 수 있다.

아웃리치를 가려면 현지인들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니 해외 아웃리치 가는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해외 아웃리치를 가지 않으려고 했다.

집이 먼 것도 해외 아웃리치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였다. 나는 경기도 여주에서 서울을 오가며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평일 팀 모임과 기도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런 내가 해외 아웃리치를 가게 됐다. 거기다가 아웃리치 전까지 하고 있는 일을 모두 끝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정신없이 일만 하다 중앙아시아 C국으로 가야했다. 이렇게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웃리치를 가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 중간에 포기할까도 생각했다. 내가 정말 아웃리치를 가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든 6시간의 비행을 하고, 차를 타고

8시간 이동한 끝에 중앙아시아 C국에 도착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선교사님으로부터 단어 몇 개만 배우고 나가서 현지인들을 만나고 오라는 미션이 주어졌다. 내 마음은 벌써 나가지 않을 핑계를 찾느라 분주해졌다. 나는 사진사역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사진을 핑계로 참여하지 않아야겠다’는 등 어떻게든 빠져나갈 방법을 찾았지만 결국 현지인들을 만나러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날 노방전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전하기보다 현지인들과 친구로서 교제하는 사역이었다. 나는 가장 큰 두려움인 언어의 벽을 넘지 못해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도망가기 바빴다. 하지만 중앙아시아 C국 사람들은 나의 어눌한 말과 미숙한 단어를 귀담아 들어주었고, 웃어주고, 관심을 가져주었다. 그들은 내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그렇게 가장 큰 벽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후 모든 사역이 수월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고 계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노방전도를 하고, 공원에서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을 초대하였다. 70명이 넘는 현지 사람들이 초청 잔치에 왔다. 일손이 부족하고 음식은 물론 만드는 시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기가 막힐 정도로 모든 것이 부족함 없

너무 큰 선물 그리고 사랑



CH630 지체들이 저녁 잔치에 초대된 현지인들과 교제하고 있다.

이 채워졌다. 그 광경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다.

이번 아웃리치는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문제와 맞닥뜨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한 특별한 시간이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좋은 팀원들과 선교사님, 중앙아시아 C국 사람들을 만난 것도 기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출발 전 여러 문제로 도망가고, 포기하고 싶어 했던 나에게 너무 큰 사랑과 마음을 부어주셨다. 내가 만든 음식은 예수님께 드리는 음식

이었다. 그 땅에서 기록한 모든 사진들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 그곳에서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곳 가운데 계신다. 모든 이들을 예수님이 섬기듯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부어 주셨다. 나는 여전히 나약하지만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음을 신뢰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다.

이번 해외 아웃리치는 나에게 너무나 큰 선물이고 사랑이었다. 누구보다 큰 동역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아웃리치였다.

영어예배 동아시아 A국

제가람(Michelle Jae)
성도(영어예배)

나는 매주 주일 부모님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던 형식적인 기독교인이었다.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수양회나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지만 나의 신앙은 변화가 없었고, 공허하기만 했다. 그러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난해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 대학교에서 만난 세 명의 한국인 선배들을 통해 매주 금요일 KCF(Korean Christian Fellowship)라는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믿음의 친구들과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만남 속에서 나의 믿음은 놀랍게 자라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온누리교회 영어예배에서 동아시아 A국으로 여름 아웃리치를 간다는 소식을 보고 신청을 하게 되었다. 6월 26일부터 7월 8일까지 2주 동안 이어진 아웃리치에서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다.

동아시아 A국에서 흘린 땀과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이 부족하다고 꾸짖는 것 같았다. 프로그램을 모두 바꾸어야 하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긴 것이다. 그때 “너는 왜 너희 팀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

고 걱정을 하고 있는나?”는 마음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고, 책임져주신다는 것을 생각으로만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밀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신뢰가 굳건해졌다.

이후 도심지에서 버스를 타고 12시간을 달려 한 마을로 이동했다. 그 마을에서 섬김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랑하는 팀원들이 아프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만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처음에는 무척 화가 나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다. 그때 제이미 목사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던 말씀이 생각났다.

“우리의 아웃리치 기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적인 사탄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의미이므로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무엇인가 무섭고, 두려운 일이 생길수록 그것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사실을 알고 기뻐할 수 있었다. 아웃리치를 마칠 즈음에는 언어의 장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학생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기쁨으로 남을 섬긴다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도전이었다. 섬김이 결국 큰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처음 경험한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들을 향한 사랑을 부족한 나를 통하여 전하신다는 것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다



영어예배 워십팀이 아이들과 함께 율동을 하고 있다.

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다.

나는 2년 전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웨스턴대학교에 입학해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다. 내가 간호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솔직히 미래의 편안함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아웃리치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간호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육체, 정신적으로 치유해주시기 위함인 것이다. 전에는 나를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느끼고 있다. 앞으로 나의 소망과 기도제목은 하나님을 그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제게 주신 사랑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안양 제일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는 최원준 목사



최원준 목사는 dk

목회자로의 부르심과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게 된 과정이 궁금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사를 꿈꾸는 정치의 교학과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낙막염 때문에 대학 1학년을 마치기도 전에 1년 동안 휴학해야 했습니다. 그 1년 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복학한 후에 외무고시를 준비하면서 신과대학에 다녔습니다. 그때 신학공부의 재미를 만끽했습니다. 졸업을 앞둔 4학년 여름방학 때 ‘대한민국의 대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1989년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으면서 무척 행복했습니다. 교역학 석사, 신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2001년 12월 신약 박사 학위수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신학교수가 되겠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논문교정에 힘쓰고 있을 무렵 우연히 접속한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설교를 몇 번이나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2002년 3월부터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역을 섬기셨습니까?

“2002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주로 서

빙고와 양재에서 섬겼습니다. 영등포구로 공동체 담당목사를 시작으로 안양안산공동체, 동작A공동체, 한강공동체, OCC공동체를 섬겼습니다. 공흥사역본부, 중보기도스쿨, 성령수련회, 그리고 리더십 양육사역(권사스쿨, 순장학교)도 섬겼습니다. 2012년 3월부터 지금까지 4년 5개월간 강동 온누리교회 담임목사로 섬겼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14년 5개월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공동체 사역이 정말 좋았습니다. 교회는 사역하는 공동체이기 전에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사역을 하면서 목회는 성도님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처럼 기쁨 때나 어려울 때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목회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중보기도학교를 섬기면서는 교회의 심장이 중보기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역동적이고 활발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순장학교, 권사스쿨 등 리더십 양육 사역을 섬기면서는 ‘목사는 코치고 성도들이 주전선수’라는 말의 참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평신도 사역이 활발합니다.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다양한 훈련을 받고, 교회를 섬기고, 아웃리치를 가는 교회입니다.

이웃들을 섬기는 공흥사역을 통해 낮아진 주님의 마음을 배웠고, 농어촌선교회를 담당할 때는 미자립교회를 찾아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강동 온누리교회

도 공흥사역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호3동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주고, 매년 김장김치 천포기를 이웃과 나누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동 온누리교회 성인공동체, 대학청년공동체, 파워웨이브 각 순은 독거노인가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에는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이웃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얻은 비전이나 사명이 있습니까?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야말로 모든 사역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형식이 어떻든 간에 좋습니다. 전통적인 예배도 좋고, 현대적인 예배도 좋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만드는 예배,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리는 예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절절히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에 압도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는 ‘지역사회 밀착형 목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밀착형 목회는 이재훈 목사님이 제시하신 ‘선교적 교회’와 그 신학적 맥락을 같이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만 좋아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주민들이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 천호동 사는데 우리 동네에 강동 온누리교회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교회를 알고, 자랑스러워하고, 언제라도 쉽고 위로로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밀착형 목회를 하는 교회는 우선 세상과 차별되는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거룩함으로 지역사회를 장악해야 합니다. 철저한 섬김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에 무엇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시기 원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지역사회 섬김은 공흥사역일수도 있고, 지역사회의 부패와 음란으로부터 정화시키는 활동일수도 있습니다.”

안양 제일교회에서는 어떤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안양 제일교회는 86년의 역사를 자랑하

는 교회입니다. 매주 주일 성인 5천5백 명, 차세대 1천5백 명이 출석합니다. 안양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전통적인 교회이면서 성령의 자유로움이 있는 교회입니다. 지역사회에 잘 알려져 있고,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교회입니다.

우선 안양 제일교회의 오랜 전통을 잘 이어받겠습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접목시켜서 오랜 전통이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또 성도님들께 ‘우리 목사님’이라고 불리고 싶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깊은 친밀함을 뜻합니다. 목사는 주일날 설교하고 떠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들과 희로애락을 같이 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눈물 닦아주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 시작은 목사는 슈퍼맨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담임목사가 모든 것을 잘 할 수 없습니다. 담임목사 혼자 교회를 이끌 수도 없습니다. 성도, 장로, 부목사님들께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온누리교회와 성도들께 당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온누리교회는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세계를 이끄는 교회입니다. 그에 걸맞은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온누리교회가 31년 동안 해왔던 여러 사역들을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전하고,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이 정말 많습니다. 친밀함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목회자에 대한 사랑, 성도간의 사랑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14년 5개월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온누리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성도님들과 좋은 동역자들 덕분입니다.

천국에 계신 하용조 목사님과 이재훈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과 교역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누리교회와 성도님들이 제게 주신 사랑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온 가족을 성숙한 신앙공동체로!

열린새신자어린이예배, 자녀와 부모의 신앙이 함께 자란다

어린이들의 신앙 성장뿐만 아니라 믿지 않던 가족을 신앙공동체로 만들어주는 예배가 있다. 열린새신자어린이예배다. 4세부터 13세까지 40여 명의 아이들이 매주 주일 저녁 7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드림홀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열린새신자어린이예배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삶으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신앙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비전이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아빠 손건일, 엄마 김지희 성도와 아들 손어진(초6), 딸 손예진(초4).

“어진이와 예진이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부모인 저희들의 신앙도 성숙해졌어요.”

열린새신자예배를 드리고 있는 손건일 성도의 말이다. 손건일 성도의 아들 손어진(초6)과 딸 손예진(초4)은 부모님이 기도해주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는다. 그런 아이들 덕분에 부모도 함께 기도하게 된다. 어진이와 예진이의 신앙이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열린새신자어린이예배 덕분이다.

손건일 성도네 예수 믿게 된 사연

손건일 성도 가족은 5년 전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왔다.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아내를 위해 열린새신자예배를 드렸다. 처음에는 자녀들도 함께 열린새신자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어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아이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다. 금방 지루해 했다. 그러던 중에 열린새신자어린이예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자녀들은 그 예배를 드리게 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열심히 섬기더라고요. 그 덕분에 신뢰가 생겼어요.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으니까 부모들은 예배를 더 집중할 수 있었죠.”

어진이와 예진이 엄마 김지희 성도는 늘 자녀들 덕분에 신앙이 성장했다고 고백한다. 3년 전 열린새신자어린이예배 소속 어린이들이 성인예배에서 특순을 한 적이 있다. 그때 열린새신자어린이예배 부서를 섬기는 선생님이 특순을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다며 기도모임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어머니들 중에 한 분이 기도모임장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부모, 아이, 선생님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특순을 준비하자는 의미였다. 아이들이 부모 대

신 기도모임장을 뽑는 가위 바위 보를 했는데 어진이가 이겼다. 김지희 성도가 열렬하게 기도모임장이 되었다.

“그때만 해도 믿음이 없을 때예요. 그런 제가 기도모임장을 맡게 되니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막막했죠.”

그래도 순종했다. 어머니들과 만나서 특순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다. 그 일이 김지희 성도의 신앙이 자라게 된 원동력이었다.

“조금씩 저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셨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 일이 3년 전인데 지금도 그 기도모임이 이어지고 있다.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서로의 기도제목과 말씀을 나누고 있다. 김지희 성도의 신앙뿐만 아니라 어진이와 예진이의 신앙도 그때부터 성장했다. 결정적인 계기는 특순이 끝나고 바로 이어진 어린이 캠프였다. 손건일 성도 가족 모두가 어린이 캠프에 참여했다. 김지희 성도는 난생처음 참석한 캠프였다.

“그 캠프에서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저희 부부가 처음으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거든요. 어진이도 그 캠프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캠프에서 온 식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 그 캠프 이후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그날 이후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영어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 갈 때면 부부 중 한 사람은 꼭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해주고 있고요.”

아빠 손건일 성도의 신앙도 무럭무럭 자랐다. 지난해 순장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관악

금천공동체 기쁨1순 순장으로 섬기고 있다. 김지희 성도가 열린새신자어린이예배로 성도들을 초대했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주저하지 말고 오세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부모와 자녀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예배는 없습니다.”

정의성 자매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사랑

여기 열린새신자어린이예배에서 은혜를 들했던 성도가 또 있다. 특별한초대공동체 정의성 자매가 그 주인공이다. 그녀는 지금 열린새신자어린이예배 교사로 섬기고 있다. 아이들을 무척 예뻐하기도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열린새신자어린이예배를 떠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는 포근하고 따뜻한 선생님으로 정평이 나있다.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안아주면서 부드럽게 이야기해주는 선생님을 아이들도 참 좋아한다. 소외된 아이 하나 없이 살뜰하게 챙기는 것이 그녀의 또 다른 매력이다. 그녀가 이토록 따뜻하고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린 시절 받은 사랑이 원동력이었다. 그녀는 부모를 따라 5살 때 열린새신자어린이예배에 왔다. 그때 받은

때부터 열린새신자어린이예배 선생님이로 섬기면서 생각과 행동이 달라졌다.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알게 됐다.

“신기하게 제 안에 있던 미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많이 미워했던 친구들을 대하는데도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정의성 자매는 열린새신자어린이예배를 드리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도 품었다. 예배에서 빼놓지 않고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석달에 한번 씩 진행한 선교지 땅밋기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다. 선교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듣고 선생님들이 직접 그린 선교지를 밟고 기도하는 프로그램이다.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무척 강조하셨어요. 그때 경험이 저의 가치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선교지에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됐어요.”

그녀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선교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했다. 오랜 고민 끝에 의료선교를 선택했고 연세대 임상병리학과에 재학 중이다. 졸업 후에 ‘국경없는 의사회’에서 활동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정의성 자매는 열린새신자어린이예배에서 찬양팀 선생님이로 섬기고 있다.

따뜻한 사랑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처음 예배에 왔을 때 낯선 느낌이 없었어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주셨는지 몰라요. 두 번째 갔을 때에는 제 이름을 말하 기도 전에 이름표를 달아 주시더라고요.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때 받았던 따뜻한 사랑이 너무 좋아서 지금껏 열린새신자어린이예배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 열린새신자어린이예배를 한 주도 빠짐없이 드렸다.

그녀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도 열린새신자어린이예배가 큰 힘이 되었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친구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두려울 정도였다. 길으로는 친하게 지냈지만 뒤에서는 서로 견제하고 불신하고 있었다. 그랬던 그녀가 중학교 2학년

그녀의 꿈이다. 전쟁, 재난 등이 일어난 현장으로 파송됐을 때 현지인이 왜 여기에 왔냐고 물으면 이 한 마디를 꼭 전하고 싶다고 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왔습니다.”

열린새신자어린이예배

열린새신자어린이예배는 새신자들의 자녀들을 위한 맞춤예배다. 윤준석 전도사가 섬기고 있다.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바로 보고, 바로 믿고, 바로 보여주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비전이다. 어린이들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사역하고 있다. 예배, 공과공부(알아가기), 특별활동(Activity)을 실시하고 있다. 예배시간: 매주 주일 오후 7시 서빙고 드림홀 문의: 윤준석 전도사(010-7328-8745)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배우 추상미가 북한 고아들을 그린 영화와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변신했다. 지난해 11월 사회선교부와 CCF가 공동주최한 ‘러빙유 청년벤처대회’에 출전해서 대상을 수상한 이후 그 방향이 더욱 분명해졌다. 조선일보에서 주최한 ‘통일 나눔펀드 지원사업’ 대상자로도 선정됐다. 그녀는 지금 6.25한국전쟁 이후 동유럽으로 보내진 북한 고아들의 행적을 쫓는 다큐멘터리와 영화제작을 준비하고 있다. 그녀가 세운 보아스필름의 비전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보아스필름 대표 추상미 감독의 두 번째 꿈

배우에서 북한 고아들을 그린 영화,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지난 19일, 합정동 한 카페에 각 분야 전문가들과 청년 예비 창업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창업에 대해 조언해주고, 서로 소통하는 자리였다. 그곳에서 여배우 추상미에서 보아스필름 대표 추상미 감독으로 변신한 그녀를 만났다. 여배우로 잘 알려진 그녀가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영화사 대표로 변신한 까닭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신 제 2의 꿈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녀가 문화예술인으로서 통일을 준비하는 꿈을 꾸도록 하셨다.

그녀의 눈빛에서 열정과 전문성이 느껴졌다. 작품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 수 있었다. 그녀는 한국을 대표하는 희극인 (故)추송웅의 딸이자 배우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영화, 드라마, 연극배우로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그녀는 한동안 활동을 접고 영화감독이 되었다. 2009년 영화연출 전공 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후 2편의 단편영화를 만들어 부산국제영화제 경쟁에 진출하기도 했다. 그런 그녀가 준비하고 있는 첫 번째 장편영화는 6.25전쟁 이후 폴란드로 간 북한 전쟁 고아들의 실화를 그린 이야기다. 폴란드 원작소설 〈천사의 날개〉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했고, 내년 하반기 이를 극영화로 제작할 계획이다. 현재는 이와 관련된 사전 다큐멘터리를 제작 진행 중에 있다.

사회적 기업 ‘보아스필름’과 함께

그녀가 만든 보아스필름은 사회적 기업이다. ‘보아스’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세운 기둥의 이름이다. 성전 오른쪽 기둥을 ‘아진’,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고 명명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이다. 그녀의 남편 배우 이석준이 운영하는 회사는 ‘아진 뮤지컬 컴퍼니’이고, 추상미 감독이 만든 영화사는 ‘보아스필름’이다.

그녀는 작년 초 개인적으로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저를 문화예술계에 두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영화라는 장르를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라고 본질적인 질문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님이 친히 작품의 소재를 허락해주세요”라고 아낌없이 주님을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했다. 예술가로서 사회에 어떻게 기여해야 할지 고민하게 됐고, 아버지가 못 이룬 꿈을 이루고 싶었다.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기도하게 됐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지인의 출판사에 갔다



보아스필름 대표 추상미 감독은 9월, 폴란드로 리서치 여행을 떠난다.

가 출판이 보류된 자료를 발견했다. 폴란드학과 의 한 교수가 번역하던 책이었다. 그 책을 읽으면서 6.25한국전쟁 이후 북한 고아들이 동유럽으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중에서도 폴란드로 가장 많이 보내졌고 그 수는 6,000명이 넘었다. 아이들은 폴란드의 아름다운 시골 마을 프와코비체 어린이집에서 천민 출신의 신앙심 깊은 폴란드 교사들에 의해 전인적인 교육을 받게 되었다. 이 실화 자료를 검토하면서 전쟁의 가장 비참한 증거를 알게 되었다. 전쟁 고아들을 구별된 천국에서 돌보시고자 했던 주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주님이 주신 소재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응답이라 생각했다. 기도한 지 일주일 만에 응답을 받았고, 시나리오 쓰기를 위한 리서치에 착수했다. 그녀는 이 작품을 통해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한 사람들의 마음 발을 준비시키기 원하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 공동체에서 만난 장로님의 권유로 지난해 11월 ‘2015 러빙유 청년벤처대회’에 출전하게 됐다. 러빙유 청년벤처대회에서 보아스필름의 비전을 구체화하게 된 것이다. 보아스필름의 비전은 사회를 성찰하고 치유하는 ‘소셜임팩트무비’를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었다. 지난해 열린 이 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후 조선일보에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에서 ‘통일 공감대 확산’ 분야 대상자로도 선정됐다.

통일을 향한 새로운 관점 상처로 상처를 품고 치유하기

그녀는 폴란드 교사들이 북한 고아들과 맺었던 관계의 메카니즘을 탐구함으로써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열고자 했다. 2차 세계대전을 참혹하게 치른 폴란드 교사들은 북한 고아들을 뜨거운 모성애로 품어주었다.

폴란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를 경험했다. 전쟁의 상처가 가장 깊은 나라가 바로 폴란드다. 북한도 6.25전쟁을 겪으면서 뼈아픈 상처가 남았다. 같은 아픔을 경험한 폴란드 교사들은 북한 고아들에게 깊은 긍휼을 품고 전인격적으로 예술을 통해 치유하며 교육했다. 그들의 동심을 회복시켜 주었다. 2006년 폴란드 국영방송기자 출신 작가 올란타 크리스바타가 폴란드에 온 북한 고아들의 역사를 추적해 실화소설 〈천사의 날개〉를 출간했다. 올란타 크리스바타는 3년 동안 이 실화를 추적하며 프와코비체 어린이집에 머물렀던 당시 북한 고아들과 폴란드 교사들의 행적을 꼼꼼히 기록해냈다. 북한의 고아들과 교사들 사이에 싹튼 훈훈한 이야기가 소설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추상미 감독은 〈천사의 날개〉의 원작을 바탕으로 극영화를 준비하기 위해 9월 중순, 폴란드로 리서치 여행을 떠난다. 그 여정을 다큐멘터리에 담아 낼 계획이며 극영화에 등장하는 이들도 오디션으로 뽑을 계획이다. 극영화에는 가무에 능한 감조 역할 ‘옥순이’를 탈북 아역 배우로 뽑아 탈북 소녀와 추상미 감독은 이 여행에 동행할 계획이다. 소설의 원작자도 만나고, 당시 북한 고아들을 가르쳤던 생존 교사도 만난다. 탈북 소녀 옥순이는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소녀 김귀덕의 실제 무덤에 찾아가 극중 단짝친구와 조우하는 장면도 그릴 예정이다.

이러한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통해 탈북민들에게 상처로 인해 사랑 받았던 북한 고아들의 행적을 소개한다. 상처의 연대감, 상처를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제시하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삶에 눈뜨게 하는 것이 작품의 의도다.

“제가 만든 영화와 다큐멘터리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갖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복음도 전하고 싶어요. 북한의 아픔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는 통일 이슈는 곧 복음의 이슈라는 결론을 내렸다. 문화예술인으로서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통일을 향한 마음 발을 일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달란트가 축복의 통로이자 복음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믿게 됐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녀는 오늘도 달린다.

■ 외국어 일대일사역자학교 수료 간증



/ 김채수 집사(성복공동체)

그때 그 마음을 회복했다

결혼하기 전에는 열정을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 공장을 방문해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다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가장 역할을 위해 생업에 전념하면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뿐이었다. 한주가 시작되면 일에 치여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가 뒤로 밀려 나게 되었다.

30대 초반에는 1년에 3명을 양육하고, 20년 동안 60명을 양육하겠다는 거룩한 비전을 세우고 도전을 해보았지만 고작 5명을 양육하고 중간에 포기했다. 사업하느라 바쁘고,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열정이 식고,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가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청년시절 순수하게 가지고 있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지고, 영적인 나태함까지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런 내가 외국어 일대일사역자 과정에 참여하면서 그때 그 마음을 회복했다. 또한 이 과정을 마치면서 느낀 것이 있다.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육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다. 늘 성령님을 간구하면서 내 자신의 의지와 욕심을 버

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심을 갖고, 몰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삶> QT를 통해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또 한 번 깨달았다. 말씀을 하나님 관점에서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나의 영적성장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여생을 어떻게 하면 말씀 안에서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나의 부족한 영어구사력과 상관없이 살아있는 성령님이 동반자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양육자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실 줄을 믿는다. 필리핀 출장 때에도 현지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만 드리곤 했는데 이제는 현지교회 리더들에게 일대일 제자양육 교제를 공급하고, 제자를 재생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

서로를 챙겨주고 격려를 해주었던 2기 외국어 일대일 사역자 과정 학생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고 양지에 나와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보듬어주면서 서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 성령수련회 간증



/ 문은영 성도

유익하고, 재미있고, 은혜로운 시간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은 참 은혜롭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은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성경은 항상 내 손에 들려 있고, 매일 새벽에는 기도의 자리, 저녁에는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 주일에도 다양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있었다. 성경과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일상에서 적용하고, 도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 참 감사했다. 일상에서는 나쁜 전쟁을 치루며 살았고, 주님을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근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표면위로 올라왔고, 그 문제들이 나를 둘러쌌다. 나는 주님께 문을 두드렸다. 이 일을 계기로 주님은 나와 교제해 주시고, 내게 진정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주님의 임재’는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 그즈음 성령수련회 광고를 보게 되었다. ‘혹시 저 곳에서 더욱 집중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켜졌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령수련회에 참가신청을 했

고, 기도하면서 성령수련회를 기다렸다.

성령수련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은 내 삶에서 나를 계속 만나 주시고 계셨구나. 그리고 내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 그동안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 붙잡으며 적용하고, 기도하고, 회개했던 내용들이 확인이 되었다. 매 강의마다 목사님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신 덕분에 분간이 안 되어 혼란스럽고 갈등이 되었던 부분들도 정리가 되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틀림없었다.

수련회에서 1박2일 동안 조원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도 기쁨이 넘쳤다. 최근 한 동안 삶이든, 신앙이든 혼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같은 조 조장님, 권사님, 집사님 등 신앙심 깊은 비슷한 연령의 지체들을 만난 것 자체가 반갑고 즐거웠다. 모두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주님에 대한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한 명 한 명 모두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했다. 유익하고, 재미있고, 은혜로운 시간들만 가득해서 1박2일이 너무도 빠르게 흘러갔다. 나에게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조원들과의 교제도 모두 짧게 느껴졌던 성령수련회였다.

■ IBS 서빙고 토요반 수료 간증



/ 황윙경 성도(용산공동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나는 몇 년 전부터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우연히 KIBI의 IBS(Israel Bible Study) 과정에 참석하게 되었다. IBS에서 여러 강의를 들으면서 성경의 흐름과 구속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중요성, 회복, 이방인과의 관계,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와의 말씀에 대해 올바르게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도 새롭고 뜻 깊게 와 닿았다. 자연스레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한 마음도 뜨거워졌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민족으로서 거기에 따른 축복과 상속뿐만 아니라 불순종에 대한 큰 대가도 치렀다. 예수님을 고난 받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한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만을 기억해서는 안 된다. IBS를 통해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도 유대인에게 많은 상처를 준 것을 알게 되었다. 그에 대해 공동책임을 느끼며 유대인들에게 사과하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마침 이번 60기 과정 기간에 홀로코스트 기념일, 이스라엘의 현충일, 독립기념일, 예

루살렘의 날, 후에는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어서 깊게 생각해볼 수 있었다.

IBS를 시작하기 전에 에스겔을 <생명의 삶> 4월호에서 읽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IBS과정을 통해 다시 한 번 묵상하게 되었다. 이어 5월호에서 스가랴를 읽을 때에 그 내용이 더욱 뜻 깊게 와 닿았다.

비록 이스라엘은 거리상 한국에서 쉽게 가지 못하는 곳이다. 그러나 주한 유대인 교포 및 한국을 방문하는 유대인을 위해 설립되어 있는 유대인 주민센터와 회당이 가까운 이태원에 있기에 관심을 가져본다. 여러 기회를 통해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줄로 믿는다. 기독교의 뿌리가 유대교이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다족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중요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한 감사와 친근함이 커졌으면 좋겠다. 나이가 많은 성도들이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루 빨리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오기를 기도한다.

■ 유아부 캠프 간증



/ 함성실 코치(서빙고 유아1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공동체

유아부에서 하는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가 바로 여름캠프 ‘어드벤처’다. 아이들은 어드벤처를 통해 더 깊이 성경이야기를 체험하고 배우며, 유아부 예배에 적응하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캠프가 중요하다.

유아부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정도 예배를 드린다. 10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공과공부를 하면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교제한다. 그러나 캠프에서는 친구들과 하루 종일 붙어 있다. 그러면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 아이들은 어드벤처가 끝나면 몇 주 동안 자신이 느끼고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우리 그때 같이 했지~ 그랬지요~!”라며 친구들을 더 반갑게 맞이한다.

올해는 ‘예수님이야기’를 주제로 사랑과 치유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배웠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와 중풍병자와 네 친구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를 배웠다. 특순으로 진행한 예수님이야기 어린이 뮤지컬은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표현했다. 유아부 아이들도 집중해서 보는 모

습이 정말 감동적이었다. 실내에서 진행했던 미로 찾기 게임도 큰 교훈을 주었다. 미로 속에서 유혹의 그림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예수님 그림만 따라가면 중간 중간에 성령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게임이었다. 예수님을 만나면 스티커를 주면서 예수님만 따라가겠다는 다짐을 받는 방식이었다. 유아부 아이들이 이 내용의 의미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한 다짐이 아이들의 인생에 적용되고 실천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다. 또한 성령의 열매가 유아부 아이들의 삶 속에 맺어지기를 기도했다. 인생은 미로처럼 세상에 유혹이 많지만 예수님을 바로 보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유아부 아이들은 예배를 통해 선생님과 부모를 보고, 알고, 배운다. 유아부 어린이들이 캠프에 참여하면서 많은 사랑과 예수님을 배웠으리라는 확신이 든다. 유아부 어린이들에게 선생님은 부모다. 부모의 삶으로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나누는 삶이 된다면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장로칼럼

놔두면 짐, 나누면 행복



남정진 장로
(일산공동체)

서빙고 나눔 장터 사역은 1998년 IMF가 발생했을 때 교회에서부터 근검절약과 나눔을 실천해서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해 보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실제로 당시 전국민적인 노력과 근검절약으로 IMF를 이겨낼 수 있었다.

서빙고 나눔 장터 사역이 시작된지 18년이 되었다. 사람으로 치면 고등학생이다. 벌써 성인이 되어가고 있을 만큼 시간이 지났지만 사역이 위축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성도들이 기증한 물건이 눈에 띄게 줄었다. 기증하는 물건이 줄어들면 나눔 물건도 적어진다. 그래도 물건을 손수 닦고, 예쁘게 싸매 들고 오시는 성도들 덕분에 나눔 장터가 지속되고 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그들의 나눔이 있기에 또 다른 나눔이 이어질 수 있다.

나눔 장터는 미니백화점이다. 나눔 장터에 기증하는 물건은 특별한 것들이 아니다. 선물 받은 수건, 사이즈가 맞지 않는 양복, 총각 때 입던 바지, 자녀가 첫 월급을 받아 선물해준 구두, 운동화, 책 등 온갖 물품을 기증할 수 있다. 다양한 물건들이 기증될수록 나눔 장터는 풍성해진다. 집에 놔두면 짐이지만 나누면 행복이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웠던 1998년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주변을 돌아보면 좋겠다. 무엇인가를 나누는 것이 예수님을 바로 보

여주는 삶이 아닌가.

나눔 장터 사역이 인기 있는 사역은 아니다. 먼지 쌓인 지하에서 옷가지를 정리하는 일이 고되기도 하다. 나눔 장터가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섬기는 권사님들이 계신다. 알아주는 이가 없어서 매주 먼지 속에서 수백 수십 벌의 옷을 정리하는 권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닮은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 그 권사님들의 섬김도 나눔의 일부다.

진열된 물건 중에 오래되었거나, 사가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할 때면 사역팀 모두가 ‘분명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아쉬움을 감추지 못한다. 그래서 나누는 만큼, 사는 것도 중요하다. 매주 주일 아침이면 나눔 장터의 문을 열기도 전에 오시는 단골 성도님들도 계신다. 본인들이 입으려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웃들에게 나누려고 사는 경우가 더 많다. 어느 성도는 매주 옷 십여 벌을 사간다. 너무 많이 사서 아내에게 꾸중을 들을 때도 있다고 한다. 매주 혼나면서도 그 성도가 옷을 사는 이유는 이웃들에게 나누기 위해서다. “이웃, 동료, 직원들과 나눔 때면 행복하다”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덩달아 행복해진다.

나눔 장터의 물건들은 전 세계로도 퍼진다. 나눔 장터의 옷은 질이 좋다고 선교사님들에게 소문이 나있다. 나눔 장터는 기증하는 곳이다. 판매하는 곳이 아니다. 성도간의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다. 나눔 장터의 판매금액은 선교사들의 병원비, 어려운 성도들의 생활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문의: 010-8752-2222

권사칼럼

보물찾기



정익숙 권사
(영등포구로공동체)

나는 뇌전증이 있는 세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다. 막내는 돌때부터 뇌전증을 앓았다. 모든 면에서 느렸고, 치료를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다. 선데이 크리스천이었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이들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성경공부는 물론 새벽기도부터 모든 예배에 참석했다.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기도하며 기대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 하나님은 내가 바로 서기를 원하셨다. 나와 의 관계회복을 원하셨던 것이다. 그것을 깨달았더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

처음에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주변 환경은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했다. 처음에는 내가 감정조절을 잘해서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상황이 더 안 좋아졌는데도 마음이 평안했다. 둘째에게 뇌전증 증세가 나타났을 때는 정말 힘들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흐릿했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내 마음 속 깊이 다가왔다. 첫째 아이마저 뇌전증 진단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부모는 기도 밖에 해줄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

얼마 전 사랑부 부모를 위한 기쁨플러스 캠프에 참여했다. 정말 오랜만에 존중받는 느낌이었다. 예쁘게 세팅된 테이블 위에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간식과 작은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한 손길이 느껴져 감동을 받았다. 조별로 산책하며 미션을 수행할 때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참 오랜만에 가져보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사랑부 아이들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이번 사랑부 캠프에서 수목원에 갔을 때도 그랬다. 수목원 직원이 온누리교회 사랑부 아이들을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장애인이 맞냐”고 물었다. 여러 복지관과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많이 오는데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다니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했다. 나는 “하나님 믿는 부모들의 자녀예요”라고 이야기해줬다. 그러자 그 직원 분이 “아~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셔서 아이들이 다르구나”라고 말했다. 사랑부 아이들이 축복의 통로가 됨을 실감했다.

장애 아동들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좋겠다. 그 아이들도 분명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물찾기 하듯 부모와 아동이 함께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보물을 찾으면 부모도, 아이도 행복하리라 믿는다. 장애 아동을 둔 안 믿는 부모님들도 자녀를 교회에 보내기를 권한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지금은 이 말씀을 고백하고 권면하고 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 15:58).

신앙에세이

영혼을 돌보는 휴가



오은규 목사
(서빙고 특별한초대공동체)

여름휴가철이다. 이번 여름에는 영혼을 돌보는 휴가계획을 세워보기를 권하고 싶다. 창조성 예술가 줄리아 카메론은 <the artist's way>라는 저서에서 창조적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소개한다.

줄리아 카메론은 “우리 모두는 인생이란 무대 위에서 작업을 하는 예술가다. 예술가에게는 창조적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창조적 에너지인 창조성을 개발할 때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창조적 작업을 행하시는 예술가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신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창조적 사역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줄리아 카메론이 제안한 창조적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은 영혼을 풍성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많은 이들이 그녀가 제안한 방법을 실천하면서 내면의 가능성과 창조적인 삶을 발견하고 삶이 회복되는 경험을 했다.

필자는 <the artist's way>에서 제안한 창조성을 소개하면서 삶에서 실천해 보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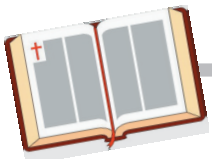
첫째, 모닝페이지(morning page)를 써보자. 이것은 일기쓰기와 비슷하다. 우리가 매일 하는 큐티와도 비슷하다. 아침마다 조용한 시간을 내어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쓰다보면 어느새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 큐티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마음으로 비춰 보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솔직하고 정직한 생

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나누는 것이다. 모닝페이지는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과 정직하게 대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에 솔직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지 모른다. 타인이 만들어 놓은 사상과 신앙체계 안에서 고독스럽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 그런 점에서 모닝페이지와 큐티를 잘 병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한 분명한 뜻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된다.

둘째, 지지그룹(support group)을 만들자.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공동체가 바로 지지그룹이다. 그런 사람들과 한 주에 한 번씩 만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살아날 것이다. 지지그룹은 어떤 것이 있을까. 순모임과 공동체가 바로 그것이다. 순모임을 통해 솔직한 감정과 생각을 나눈다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것이다. 주변에 지지그룹이 많을수록 영혼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아티스트 데이트를 하자. 창의적 예술가로서 인생이란 무대 위에서 작업을 할 때 스스로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할 수 있어야 한다. 늘 타자를 위해 살아왔거나 조직만을 위해 살아왔다면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어릴 적 아버지께서 “아들아,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를 아끼지 마라. 첫째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데 돈을 아끼지 말고, 둘째는 여행을 다니며 견문을 넓히는데 시간을 아끼워라”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 아티스트 데이트는 자신을 위해 쓰는 시간과 돈을 말한다. 멋진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고 싶었던 멋진 옷을 사고, 가보지 못한 곳에 여행을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여름휴가에서 필자가 제안한 세 가지 방법을 실천하며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소망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요나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

요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땅으로 토해 냈습니다”(10절).

이 사건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잘 보여줍니다. 큰 물고기에게 명하시고, 태풍을 보내시고, 제비뽑기해서 요나가 뽑히게 하고, 바다에 던져지는 그 순간 물고기가 삼키게 하고, 물고기로 하여금 토하게 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이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해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나의 사건을 인용해서 사역을 설명하셨는데 매우 큰 중요성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 줄 것이 없다. 요나가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마 12:39-41).

가장 정확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요나의 사건은 악한 세대에게 주시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있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39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눅 11:30).

표적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믿어야 하는지를 보여 달라는 요구입니다.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악한 세대는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보아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더 이상의 표적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요나와 같은 표적이 되셨습니까. 요나가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3일 밤낮을 땅속에 있는 것으로 표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표적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3일 밤

땅속에 있었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은 가운데서 3일 밤낮을 계시다가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요나의 사건과 예수님의 사역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 이뤄지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에 던져져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그의 옛 생명은 물속에 잠사된 것입니다. 요나가 처한 상태는 지옥의 깊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지옥이라는 단어는 죽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요나가 바다 속에 던져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고통을 준 정도가 아닙니다. 요나를 죽게 하신 것입니다. 고통 속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를 수장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요나의 생명을 요구한 것이고, 요나가 죽음으로써 죄의 삶을 지拂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기 전에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세례는 영어로 ‘Baptism’, 헬라어로는 ‘바티조’입니다. 바티조는 물에 잠기다는 뜻입니다. 침례교에서는 진짜 물에 잠기게 합니다. 예식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나는 물에 빠져서 큰 물고기가 삼킴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 물을 뿌림으로 옛사람이 수장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 죽음을 통과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옛사람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나와 비교할 수 없는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요나가 받은 고통은 숨 막히는 고통이었지만 예수님은 온몸이 찢겨졌습니다. 요나가 받은 사명은 지극히 제한적이었지만 예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명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도망하는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함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요나는 실제적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롬 6:4).

회개하고, 감사할 때 비로소 구원이

여러분, 요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요나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순간일지라도 회개하고, 감사할 때 여호와로부터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의지하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보다 나은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요나처럼 옛사람이 수장되고, 예수님이 땅속에서 죽으신 것처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옛사람이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요나의 사건은 바로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 시대의 표적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이 시대의 표적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 표적이 이제 실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요나처럼 끊임없이 불순종으로 나아갑니다. 특권만을 바라고, 사명을 잃어버리는 불순종의 습관들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힘으로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새 생명의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선교지에서 온 편지



유예녹, 서예스더 선교사
(남아시아 E국)

우리 가족 모두가 앓던 감기가 얼마 전에 진정 되었다. 더운 날씨 때문에 학교에서 에어컨을 강하게 틀어주면 아이들이 감기에 자주 걸리곤 한다.

나는 이곳에서 가정교회 개척 및 활성화화를 위한 사역을 하고자 한다. 이 사역을 위해서는 말씀묵상과 나눔이 필요하다. 감사하게도 선배 선생님이 현지인들에게 두 가지 언어로 된 성경번역 및 배포사역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정기구독해서 활용하고 있다. 선배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 버스로 8시간을 달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묵상나눔사역’을 시작했다. 이번 달에는 내가 가서 지난 한 달 동안 묵상한 말씀을 나누고 왔다. 어

렵기는 했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곳에서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려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다. 무슬림 형제들과도 이런 모임을 했으면 정말 좋겠다. 이곳에는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모임이 매우 적다. 모임들이 더 많이 생겨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은 7년 전 이주민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이곳에 온 적이 있었다. 두 달 동안 언어를 배우고 내가 처음 복음을 전한 아민(가명)이라는 형제가 있다. 지금도 종종 오가며 인사하고, 나누고, 만난다. 그와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보려고 한다. 모임을 제안했을 때 좋다고 하더니 막상 당일 날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 아민 형제는 직장에서 시간제로 일하고, 오후에는 전기수리를 한다. 우리 집 전기배선이 고장 나 그가 수리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복된 소식을 전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했어도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족, 친지, 친구들로부터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오라는 화유와 협박을 끊임없이 받기 때문이다.

더 기도하고, 더 섬기고, 더 많이 찾으면

아민 형제의 친구들로부터 그가 나마즈(무슬림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식사를 마치고 단둘이 차를 마시면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어떤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실 생각 있으세요?”

그뿐만 아니라 목회자나 외국인 선교사로부터 정기적인 멘토링이나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도 물었다. 멘토링이나 훈련은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아민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만나고, 깊이 있게 대화하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복된 소식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것이다. 하루 빨리 그에게 복음은 현재의 삶과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진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그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때가 빨리 오기만을 바라고 있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섬기고, 다가갈 기회를 더 많이 찾으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된 소식이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부탁한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기를 바란다.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시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 손정훈 목사

시간 :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 김국중 팀장(010-8885-6757)

S브릿지 예배

내용 :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 김정섭 팀장(010-3301-2897)

장애인 공동체 누리스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20 선교관 한동을

문의 :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본당

문의 :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 꿈꾸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꾸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파워웨이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꾸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천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 공자정 집사(010-5101-461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 선교관 403호

문의 :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30-3:30

장소 : 서빙고 신관 301호

문의 : 이재신 팀장(010-4753-3150)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틀은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서빙고 목요어머니 기도회

시간 : 목요일 10시 30분 / 누리홀

문의 : 안민경 간사(02-3215-3523)

선교재단 채용공고

모집 : 서빙고 커피숍 직원, 양재 한식당 조

리원, 양재 보안관리 직원, 양지 기전

시설 직원, 양지 한식당 조리사(1년

기간제 계약직, 입사일로부터 1년간

위 계약갱신)

자격 : 세례교인, 경력무관(동종업체 경력자

우대), 인근 거주자 우대

접수처 : bible81@onnuri.org

서류 : 이력서 1부(사진부착, 출석교회 명시,

자기소개서 1부(과거 경력 및 업적

상세히 기술), 신앙간증문

문의 : 선교재단 총무팀(02-3215-3102)

S브릿지 아웃리치 한방팀 봉사자 모집

날짜 : 8월 12일~14일

장소 : 고수교회(전북 고창군 소재)

모집 : 한의사, 간호조무사

문의 : 신성환 팀장(00-8776-6894)

CMN라파티م 의료봉사자 모집

내용 : 외국인 근로자 진료봉사

모집 : 서빙고 온누리교회-간호사

(3주 주일 오후 4시~6시)

치위생사(24주 주일 4시~6시)

안산엠센터-내과의사(3주 주일 2시

~5시)

문의 : 심형섭 팀장(010-3227-9915)

다국어도서수집

언어 : 중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등

기증장소 : 안산 온누리 M 센터

문의 : 유경 전도사(010-7550-2425)

서빙고 한글학교 교사모집

일시 : 매주 주일 오후 1시~3시 30분

모집 : 성인반 선생님 2명

장소 : 서빙고 온누리교회 B102호

문의 : 이승희 총무(010-4229-2822)

사랑부 예배 자막, 음향담당 모집

시간 : 매주일 오전 9시 콘서트를

문의 :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서빙고 온누리상담센터 레지던트 모집

자격 : 온누리교회 등록교인, 상담관련

석사 취득, 면접상담 100시간 이상

내용 : 교육 1년, 교육비 1학기당 30만원

시간 : 1일 상담, 1일 교육(수요일)

서류 : 지원서, 최종학위증명서, 목회자

추천서, 임상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마감 : 8월12일 17시까지 서류접수

문의 : 02-793-2998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0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충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충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 사랑홀 (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한국어)

영아부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 도곡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오후 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감람청년부예배: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 최재호 전도사(010-4336-3528)

프랑스어 예배

설교 :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 주일 오후 2:00

장소 :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 010-3912-939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목상의집(WIN) 주일예배

일시 : 매 주일 10시 남한산성 목상의집

*서틀은행(010-8870-9313)

-양재역10번출구 9:00 출발(던킨도너츠)

-북정역 2번출구 9:20 출발

마리아행전 중증기도모임

대상 :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 양재 화평홀

문의 : 배수연 간사(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 양재 비전홀A

시간 :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양재 목요어머니기도회

오누리교회

<http://onnuri.or.kr>

■기도처
• 태안온누리
송영동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해외 온누리교회 ●

■ **미분부**

■ 일본

-15-

다비

■ 동남아시아

1-71	1-71	1-71	1-71	1-71	1-71

박승훈 배
유스현 이

◆경배와
하스데바 O

이러한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부몰사

SEE PAGE 10

000 000 111 100

Tommy Nyobvu

◆장로
기독교 기

Page 10 of 10

Page 10 of 10

THESE RESULTS ARE IN ACCORD WITH THE



57편

온 마을주민과 어우러진 천국잔치
'CGNTV 청양을 부탁해'

농활은 온 몸으로!! 하나님은 온 맘으로!!

복음의 열매를 기다리는 고향교회를 돕기 위해 개그맨 이정규와 CGNTV 직원들이 나섰다!



#1
마을잔치



#2
교회꾸미기



#3
포도농장 알숙기

방송시간 **7월 25일 (월) 오전 11시 30분**